

■ 주요 뉴스: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및 지역 연은 제조업자수, 경기회복 지속을 시사

- 미국 뉴욕 연은 총재, 고물가 현상이 전반적으로 확산
- S&P, 중국 헝다그룹은 디폴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편
- 터키 중앙은행, 기준금리 인하. 리라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사상 최저 수준

■ 국제금융시장: 미국은 주요 경제지표 개선에 따른 양호한 성장 전망 등이 영향
주가 상승[+0.3%], 달러화 약세[-0.3%], 금리 약보합[-0bp]

- 주가: 미국 S&P500 지수는 기업 실적 호조와 빅테크 강세 등이 견인
유로 Stoxx600 지수는 에너지 관련주 약세 등으로 7거래일 만에 하락 전환
- 환율: 달러화지수는 그 동안의 상승에 따른 차익매물 출회 등으로 매도 증가
유로화가치는 0.5% 상승, 엔화는 0.2% 하락
- 금리: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양호한 입찰 결과 등이 배경
독일은 유로존 주가 하락 등이 반영되어 3bp 하락

※ 원/달러 1M NDF환율(1183.9원, +2.5원) 0.2% 상승, 한국 CDS 보합

		11/18일	11/17일	전일대비			11/18일	11/17일	전일대비
주가	미국	4,704.5	4,688.7	0.34%	국채 금리 10y	미국	1.59%	1.59%	-0bp
	유럽	487.70	489.95	-0.46%		독일	-0.28%	-0.25%	-3bp
	중국	3,520.7	3,537.4	-0.47%	CDS 5y	한국	19bp	19bp	0bp
	일본	29,599	29,688	-0.30%		중국	51bp	52bp	-1bp
	한국	2,947.4	2,962.4	-0.51%	위험 지표	EMBI+	-	375	-
환율	달러지수	95.52	95.83	-0.32%		VIX	17.59	17.11	2.81%
	유로화	1.1371	1.1319	0.46%		WTI유	79.01	78.36	0.83%
	엔화	114.26	114.08	-0.16%	원자재	구리	429.9	426.6	0.77%
	위안화	6.3861	6.3780	-0.13%		금	1,858.9	1,867.5	-0.46%
	원화	1,180.4	1,182.5	0.18%					

주: 주가는 미국 S&P 500, 유럽 Stoxx 600, 중국 상해종합, 일본 닛케이225, 한국 KOSPI.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.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(+/-는 절상, 절하). 자료: 블룸버그

금일의 포커스

■ 미국의 주간 고용지표 및 지역 연은 제조업지수, 경기회복 지속을 시사

- 11월 2주차 신규실업급여 청구건수는 26.8만건으로 20개월래 최저치를 기록하며 팬데믹 이전 수준(2020년 3월 중순 기준 25만명대)에 근접. 다만 노동공급 부족 영향으로 고용이 빠르게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추정
- PNC 파이낸셜의 Gus Faucher는 노동수요가 매우 양호한 반면, 공급이 부족하여 노동자 해고가 많지 않다고 평가. Moody's Analytics의 Ryan Sweet은 노동시장에 미치는 델타 변이의 영향이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진단
- 한편 11월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지수는 39.0을 기록하며 1973년 이후 최고치. 양호한 신규수주 등이 주요 원인. Oxford Economics의 Oren Klachkin은 공급 병목 문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해소되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

글로벌 동향 및 이슈

■ IMF, 세계 일부 지역에서는 높은 수준의 인플레이션이 장기화될 가능성

- 게리 라이스 대변인은 공급 차질이 지속되거나 인플레이션 기대가 유지된다면 해당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. 미국의 경우 내년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를 예상하지만, 당국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강화되는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

■ 미국 뉴욕 연은 총재, 고물가 현상이 전반적으로 확산

- 윌리엄스 총재는 해당 현상으로 미래 물가상승에 대한 기대 또한 높아지고 있다고 진단. 물가상승은 전반적으로 코로나 19 및 수급 불균형이 원인이나, 주거비 상승 등은 다른 요인의 영향을 받고 있다고 평가

■ JP 모건, 미국 금리인상 시기는 내년 9월이 될 전망

- 마이클 페롤리 이코노미스트는 내년 중반에 완전고용 목표의 달성이 가능하며, 그 이후에 금리인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발언. 12월에는 2차 금리인상을 예상

■ ECB 수석 이코노미스트, 유로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내년에 완화될 전망

-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투자자와 소비자 모두 중기 측면에서 물가의 큰 폭 상승을 기대하는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발언. 다만 임금은 점진적 상승을 관측

■ 중국 인민은행 총재, 인플레이션 압력의 일시적 여부는 아직 불분명

- 이강 총재는 코로나 19의 변이 바이러스가 경제 활동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발언. 또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(mismatch)가 길어진다면 장기적인 경기회복을 저해하게 된다고 부연

■ S&P, 중국 헝다그룹은 디폴트 가능성이 여전히 높은 편

- 헝다그룹이 최근 달러화 채권의 이자를 지급했지만 2022년 3,4월에 또 다른 35억달러 규모의 달러화 채권 상환 시기가 도래한다고 지적. 또한 신규주택 판매가 어렵게 되어 부채를 모두 해결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추정
- 한편 헝다그룹은 스트리밍 서비스 업체 HengTen Network Group의 지분(2.7억달러) 매각 추진을 통해 유동성 확보에 나설 방침

■ 일본 언론사, 정부의 경제 대책 규모는 55.7조엔에 이를 전망. 시장 예상을 상회

- 이번 대책에 미성년 국민에 대한 10만엔 상당의 지원금 지급, 중소기업 지원, 고유가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 등이 포함. 다만 예상보다 대규모의 정책 시행에 따른 국채발행 증가 가능성 등으로 국채금리가 상승

■ 터키 중앙은행, 기준금리 인하. 리라화 가치는 달러화 대비 사상 최저 수준

- 기준금리를 1%p 낮춰 15%로 결정. 이번 결정 이후 달러화 대비 리라화 가치는 4% 하락. GAM의 Paul Mcnamara는 중앙은행이 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혼란스러우며, 리라화 가치의 유일한 동인은 통화정책이 되고 있다고 지적

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, 기준금리 동결. 경제성장 지원 등을 강조

- 기준금리로 사용되는 역레포 7일물 금리를 3.5%로 유지. 수출 개선, 재정지출 확대, 소비와 투자의 회복 등을 이유로 4/4분기 및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상향 조정. 공급 병목 등의 문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

주요 경제지표

■ 주요 경제 이벤트(11/19 현지시각 기준)

- 연준 클라리다 부의장, ECB 라가르드 총재, 독일 중앙은행 총재 강연
- 유로존 9월 경상수지, 영국 10월 소매매출, 일본 10월 소비자물가

해외시각 및 외신평가

■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 시점, 물가보다는 고용이 주요 변수 - 블룸버그

(Jobs, Not Inflation, Will Ultimately Be What Forces the Fed)

- 수개월 간 인플레이션 압력 논쟁은 연준의 예상보다 빠른 통화정책 긴축 전환 여부에 중요한 요소로 부각. 그러나 최근 노동시장 지표들은 고용 개선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점차 완전고용에 근접하고 있음을 시사
- 이는 연준이 금리인상 기준으로 제시한 최대 고용이 당초 예상보다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음을 의미. 연준은 그 동안 고물가의 심각성을 축소하여 왔으나, 노동시장 상황을 감안하여 2022년 중반 금리인상을 개시할 전망

■ 미국 국채시장, 발생 가능한 충격 흡수를 위해 구조적 개혁이 요구 - Financial Times

(The US Treasuries market is a dangerous place to dream)

- 작년 코로나 19 사태는 국채시장에서 연준의 개입 전 시스템적 혼란을 초래. 또한 금년 2월 인플레이션 우려로 작지만, 또 다른 충격이 발생. 이를 고려할 때, 향후 금리인상 등 긴축정책 선회 시 채권시장은 다시 한 번 혼란에 직면할 가능성
- 특히 은행권은 금융위기 당시 자본요건 강화로 채권보유 규모를 줄였으며, 이후 알고리즘 기반의 펀드들이 해당 공백을 대체. 아울러 일부 헤지펀드의 파생상품은 투명성이 미흡. 이에 은행권 안정성은 향상 되었으나 채권시장은 취약해지는 결과 발생
- 이에 규제당국은 투자은행의 시장조성자 역할 확대, 채권 거래 기업에 대한 감독 강화 등 합리적이고 구조적인 해결책 마련이 필요

■ 유로존 고용 개선, 통화 및 재정정책의 실효성을 입증하나 방심은 금물 - Financial Times

(Jobs record shows EU can learn from past)

■ 터키의 금리인하와 리라화 가치 폭락, 신흥국은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 - WSJ

(Turkey's Rate Debacle Is a Warning for Emerging-Markets Investors)

■ 영국 은행권의 통합 지연, 은행·소비자당국 모두에 부정적 영향 - Financial Times

(Lack of consolidation among challenger banks is a problem)

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;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. 문의: 02-3705-6228, E-mail jsjeong@kcif.or.kr